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테헤란 폭격

충돌 옛새째...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 쏘다...영공 장악”

트럼프 압박 강화에 테헤란 시민 탈출 러시...“도시 텅 빈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옛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기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께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비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 적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반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국영 TV를 통한 성명에서 “파타-1 미사일을 이용한 자랑스러운 ‘진실의 약속III’ 작전의 11번째 공격”을 수행했다면서 이란군이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기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전날 늦은 오후까지 테헤란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으며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는 등 도시가 텅 비어가는 모습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테헤란 도심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딱 차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으며,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테헤란 주민은 AP와 통화에서 “아무도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 돔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서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 하원서 낙태 완전합법화안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 폐기

임신 24주 이내 중절 형사처벌 조항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낙태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 여성을 낙태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부터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국한해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낙태를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낙태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의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낙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의 산모가 임신중절 약물을 전하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안도니 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명의 임신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으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낙태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불법 낙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엔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절로 기소됐고 이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여전히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중서 희귀 혈액형 ‘p형’ 발견

“100만분의 1 미만 확률”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p형’ 혈액형이 발견됐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8일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윈난성 윈산 장족·묘족 자치주 혈액센터는 지난 16일 극히 드문 혈액형인 ‘p형’ 혈액형을 발견했다.

이 센터가 설립된 지 22년 만에 누적 57만명의 헌혈자 중 처음으로 p형이 나왔다.

센터 측은 광저우 혈액센터 임상수혈연구소와 협력해 O형 헌혈자의 혈액에 대한 항체 검사 실시 과정에서 p형인 사실을 발견했다.

P형은 1927년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학계에 처음 보고됐다.

P형은 A·B·AB·O형과 다른 희귀 혈액형이지만, 기존 ABO와 Rh 혈액형 시작으로는 구별되지 않아 놓치기 쉽다.

P형은 다시 P1·P2·P1k·P2k·p로 나뉘는데, p형을 갖고 태어날 확률은 100만분의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의 타이싱인민병원에서 p형이 발견된 바 있으며, 당시 중국에는 p형 혈액형을 보유한 사람이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견으로 p형 혈액형의 수혈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대만 최초 국산 잠수함 첫 해상테스트 실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최초로 자체 제작한 잠수함이 해상 테스트를 처음 진행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2023년 진수한 첫 대만산 방어형 잠수함(IDS) 하이쿵호가 CSBC 가오슝 공장 부두를 떠나 가오슝 제2항구 외해에서 약 5시간 동안 해상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 테스트 1단계를 순조롭게 마쳤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후 다음 2·3단계 잠항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이쿵호가 전날 오전 8시30분께 자

체 동력을 이용해 출항한 후 예정보다 1시간 빠른 오후 2시30분께 귀항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쿵호가 항만승인시험(HAT)을 완료하고 해상승인시험(SAT)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6 잠수함 전대 소속 승조원이 이번 테스트에 참여해 추진력, 방향타, 전력, 환기, 통신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이쿵호의 해상 테스트에서 어뢰 발사 및 전투시스템 등 31개 항목의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탕화 대만 해군 사령관(상장)이 타이베이 해군사령부에서 영상으로 전 과정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패유죄 아르헨 前대통령,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

법원 “72세 고령, 2022년 피습 등 고려”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좌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혐의를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은 징역 6년 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에 방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하기도 했다.

당시 암살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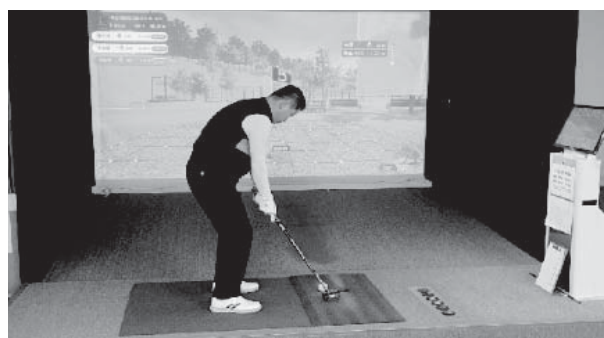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